

<2010년 9월 29일 수요일말씀>

오직 주만 사랑할 때다 사랑은 천국이다

본 문 누가복음 10장 27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지, 그에 따라 어떻게 운명이 좌우되는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에 대하여 전초를 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초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주님께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너무 중요하여 내가 말씀을 줄 테니 너는 기록하여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에 대하여 전초를 할 것인데, 오늘은 전초도 예수님께서 하시니 잘 듣기 바랍니다. <영상1>

<전초 말씀> 너희가 나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희 영혼을 살린다. 사랑은 생명과 같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과 행위에 따라 실상 구원의 차원도 정해진다. <영상2>

너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세상 말로 하자. 사랑은 마치 세상의 돈과 같다. 돈이 많이 있으면 아주 좋은 집도 살 수 있다. 적은 돈으로는 먹는 것과 입는 것밖에 못 사고, 더 적은 돈으로는 공책이나 불펜밖에 못 산다. 나에 대한 사랑도 항상 이같이 생각하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 구원의 차원도 정해진다.

이제부터 역사적인 사랑의 이야기와 이 시대에 해당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사랑이 너희 육과 영의 미래와 운명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너희는 그동안 사랑에 대해 배우고 살아왔다. 오늘도 나의 말을 듣고 사랑을 생명같이 귀히 여기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 말씀>

<영상3>

나 예수가 너희를 친히 사랑하기에 이같이 나타나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을 알아라. 사랑은 누가 대신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니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하지 않겠느냐.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만나서 울고,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보고 싶어 한다. 내 심정과 마음을 알고 내 슬픔을 느끼고 내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가 내 품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인류 역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근본은 사랑의 역사다. 사랑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사망으로 사라지는 초라한 영혼이 된다. 사랑을 잘못 쓰고 살았기 때문이다.

개인, 가정, 민족, 이 시대가 나와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하여 심판으로 쓸어 버리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한다. 롯 시대 소돔 땅과 노아 시대 때도 그러했고, 그 후 나의 시대 때도 그러했다.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면서 지구 세상에 수십만 번 이상 크고 작게 그같이 행했다.

하늘의 사랑의 비밀을 알아라. 이 시대도 너희 각 사람들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 정신, 생각, 행위를 본다. 이것에 따라서 너희 운명이 좌우되어 매일 이리로, 혹은 저리로 가게 된다.

종교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뜨렸다. 에로스적인 육적 사랑과 아가페적인 영적 사랑, 이 두 가지가 깨졌다. 애인 차

원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타락함으로 종이 된 것이다. 사탄의 침범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한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아무리 침범해도 타락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를 거울삼고 절대 온전히 나를 사랑하고 너희 자신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라.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절대 사랑하는데 다른 자의 꼬임에 넘어가겠느냐. 절대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자기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고 절대 온전히 한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함으로 사랑이 박탈되었기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종의 몸으로 지극히 육적으로 살게 되었고, 만물의 종이 되기까지 땅에 떨어져 살게 되었다. 타락된 사랑을 할 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같이 했지만 양심의 눈을 떠 보니 사망이요, 죽음이요, 지옥이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메시아인 나 예수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종의 입장에서 형벌 주관권에 살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 4000년 역사다.

구약 4000년 역사 가운데 시대에 따라 중심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종교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처럼 살지 않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조건을 세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중시하여 역사를 펴셨고, 그들은 그 시대 표상이 되어 생명 역사를 펴 나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그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다. 노아 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성으로 타락하지 않았던 노아의 여덟 식구를 살려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양심 심판하여 멸하셨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멸망을 받고,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이 시대도 동일하다. 사랑이 생명이다. 다윗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시대의 사역자와 표상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셨다. 너희 섭리사도 그와 같다.

나 예수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났을 때부터 나는 후

아담으로서 아담이 하지 못한 사랑의 역사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었다. 사랑에 성공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종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내어 나와 같이 아들의 입장으로 구원하는 구원섭리를 폈다. 죽은 사랑을 부활시킨 것이다. 다른 말로 휴거시킨 것이다.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내 말을 믿고 지키며,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의 부활을 이루고 휴거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때 세상이 나를 영접하고 사랑했으면 그 당시에 사랑의 신부 역사를 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불신함으로 인하여 신부 역사가 2000년이나 늦어진 것이다. 고로 신약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모두 나의 재림을 기다려 왔다.

◆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아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종이 되어 살았고, 롯 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 심판을 받았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사랑하며 타락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구약 4000년 역사는 종 입장에서 형벌 주관권 안에서 살았지만, 시대마다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중심인물들(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등)이 그 나름대로 사랑의 조건을 세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그 시대마다 구원섭리를 펴 나가셨습니다.

그 후에 후아담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조건을 이루어 사랑의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신약역사가 시작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종 주관권에서 이끌어 내어 아들 입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사랑이 부활되고 휴거되는 역사였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

<영상4>

너희는 나의 재림 기간인 당세에 태어나 살기에 나를 맞기 위해 예비하고 조금만 기다리다가 나를 맞지만,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태어난 자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재림을 기다렸다.

너희는 배우고 깨달아라. 그들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영으로 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가 사랑의 신랑으로 올 것을 알고 수천 년 동안이나 단장했다. 그중에 어떤 자는 1000년, 어떤 자는 1500년, 어떤 자는 3000년, 어떤 자는 5000년씩 단장하고 예비하기도 했다.

너희는 이제 나를 믿고 사랑하며 단장하니 3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단장하고 예비하지 않았느냐. 그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갖추지겠느냐. 그러니 정말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

이 시대 너희들은 짧은 기간 동안 나를 맞기 위해 준비해야 하기에 재촉하며 가야 하지만, 한 가지 장점은 나를 중심한 너희 선생이 나의 신부로서 조건을 세워 너희들에게 오직 신부의 말씀만을 전해 왔기에 그 말씀대로 1년을 준비하면 100년을 준비한 만큼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재림 기간 때는 너희뿐 아니라 지구 세상에 나를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야 되고, 나를 기다리다가 육신이 죽어 영계에서 영으로서 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들에게 말씀을 줘야 한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바쁘겠느냐. 빛보다 빠르게 다녀도 시간이 모자라다.

세상 지식이 있어도 나에 대한 영의 지식이 없으면 모른다. 너희는 한자리에 천만 명이 모인 것을 본 일이 있느냐. 1억 명이 모인 것을 본 일이 있느냐. 나 예수가 관리할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10억만 되겠느냐. 50억만 되겠느냐. 100억만 되겠느냐.

그런데 이같이 많은 생명들을 관리하고 있는 내가 너희 개인에게 와도 몰라주고 자기 일에 빠져 있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빠져 있구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인생 중의 한 인생인데,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며 너희 영혼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나 예수를 보통으로 대하니 그래서야 제대로 구원을 받겠느냐.

나를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지 말아라. 나는 신이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고 나를 제대로 대하여라. 너희 양심으로 나를 증거하며 살아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특히 집중하여 잘 듣기 바란다.

<사랑의 핵심 말씀>

이제 이 시대에 사랑의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신구약 6000년 역사를 복직하는 사랑의 시대다. 사랑 복직의 시대가 왔는데도 못 하면 그 영은 사망의 영으로 끝난다. 나 예수의 사랑에 일체 되려면 나와 일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차원에 따라 역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왔다. 종급 구원 - 자녀급 구원 - 신부급 구원이다. <영상5> (그림 도표)

각 개인도 나 예수를 향한 사랑의 차원대로 그 영혼의 구원 급도 정해지고, 그 육신의 구원 급도 정해진다. (* 천국급 성약역사에 살면서도 신부의 차원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종이나 자녀의 차원에서 주님을 대하면 그 영육의 구원급도 그와 같이 정해진다.)

너희 영과 육은 일체라서 육신의 사랑이 깨지면 그 영도 일단 사랑이 깨진다. 너희 육이 타락하여 나와 사랑이 깨지면 너희 영도 나와 사랑이 깨진다는 말이다. 회개해야 복직된다.

타락하지 앎음으로 아예 사랑이 깨지지 않고 깨끗한 자는 더 차원 높은 위치의 구원을 받아 빛난 삶을 산다.

타락하지 앎음으로 사랑이 깨지지 않은 자라도 나 예수를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그 사랑도 육과 같이 늙어 좋은 때를 놓치게 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 예수가 그를 사랑해 준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되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나와의 사랑에 성공하면 신앙, 믿음, 그 어떤 것도 다 이룬 자다. 나와 사랑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는 사랑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망에 속한 영

이 되어 그 육신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 영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 나와와 사랑을 이루고 사는 자는 그 영이 생명권의 세계로 재탄생된 것이다.

나와와 사랑을 이루었으면 같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 사랑하며 살다가도 사랑의 권태와 허무로 처음 사랑이 변하고, 혹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사랑이 식고, 혹은 비원리적 사랑을 하여 서로 사랑은 하는데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깨지고 미움으로 끝나는 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나와와 사랑을 이루고도 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다. 그러려면 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들어야 되고, 날마다 나의 무한한 사랑에 도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하다. 그러나 너희가 변하는 것이 문제다. 게으르고 태만하고 나의 사랑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문제다.

너희 선생을 통해 보이는 사랑을 했어도 또 가다가 처음 사랑이 식어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여 사는 자가 있지 않았느냐. 사랑의 배신이다. 사랑이 깨지면 금 항아리가 깨진 것 같다. 나는 흠 없는 사랑을 한 자를 크게 쓴다. <영상6>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희망이다. 너희의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차원 급대로 너희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한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구원을 이루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한다. 나의 사랑을 받고도 나를 향한 사랑이 없는 자는 죽은 영혼이다. 죽은 육신이다. 사망권의 삶이다. 영계에 가 본 자들은 보았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급수대로 너희 영혼이 거할 집이 마련되어 있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가지가지로 해 준 것이다.

사랑으로 휴거가 결정되고, 사랑으로 축복도 결정되고, 사랑으로 사

명도 결정되고,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도 더욱 강하고 뜨겁게 일어난다.

너희가 더욱 나를 가까이 대하며 나의 신부로서 살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사랑’ 때문이다. 세상에서 남남이 어찌 혈통이 되고 가까운 자가 되겠느냐. 돈을 줘서냐. 일을 해 줘서냐. 돈을 준 자는 은혜자요, 일을 해 준 자는 그 값으로 돈을 주는 하나의 일꾼이 아니냐. 사랑하였기에 혈통이 되고, 제2의 자기 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나와도 그러하다.

내가 얼마나 사랑에 대한 말을 해야 알겠느냐.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실습이다. 나와 실제로 사랑해야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된다. 나를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하고, 돈이나 명예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으로 사랑해야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정녕 알아라.

나는 너희 선생을 통해 이 시대 나의 신부가 되는 사랑에 대하여 선포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른다.

나는 영이고 너희는 육이다. 너희 몸은 세상과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 있고, 너희 마음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으로는 사랑에 성공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몸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격이다. 몸도 마음도 에로스 사랑과 아가페 사랑을 다 해야 온전한 사랑이며 100% 사랑이다.

나는 너희를 100% 사랑한다. 나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영혼을 다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교회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세상에 나가면 마음도 눈도 귀도 세상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를 끌어안고 자기 좋은 대로 산다. 그런 자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자냐. 네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라. 성경 최고의 법을 여기면서 사는 자가 온전한 자냐. 몸은 세상으로 놀리고, 마음은 반신반의하고 내게 와서 구원을 이루려 하느냐.

나를 믿는 모든 종교가 나를 제대로 못 가르쳤다. 자신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성공하고 나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르

치니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사탄의 육신이 되지 않았느냐. 섭리사는 이미 나의 사랑의 깊은 뜻을 알고 신앙을 해 왔기에 성약 신부 역사 1000년 역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온 자들은 잘 모르니 제대로 가르쳐 주어 제대로 하게 하자.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면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나를 짝사랑하게 두는 자와는 결단코 사랑이 성사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만큼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한쪽에서만 하는 사랑은 짝사랑이다. 같이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 선생은 이 도를 깨닫고 나에 대해 배우고 모든 사랑을 내게 쏟았다. 그러므로 너희 선생은 섭리사 사랑의 조상이 되었다. 섭리사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것을 모르느냐.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너희 책임이지, 내가 증거해야 되겠느냐. 너희 선생이 나의 짝사랑의 마음을 알고 내게 모든 사랑을 쏟아 나의 신부가 되었기에 나 예수가 오늘도 너희 선생에게 사랑의 묵시를 기록하게 하여 너희에게 전해 주고 있지 않느냐.

사랑이 통해야 모든 것이 통한다. 사랑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진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고할 때 내가 아가서 말씀같이 문을 열어 내게 들어 오게 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부르기 전에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을 내어라.

천국은 사랑이 값이다.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만이 천국과 바꿀 수 있다. 나를 향한 너희 사랑의 덩어리가 순금 덩어리 같아야 천국에 들어온다. 너희 영혼이 지상영계, 낙원천국에 갔어도 나를 향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수천 년, 수십만 년이 되도록 천국에는 못 온다. 사랑이 최고의 위력임을 알아라.

너희가 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달아라. 죽음에서 꼭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라. 나는 네 사랑의 깊이를 재 본다. 그리고 결정한다. 너희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것에 신경 쓰며 매일 매순간 나를 사랑으로 대했는지 본다. 그리고 결정한다.

사탄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본다. 그리고 침범하여 해를 준다. 너희가 나를 절대 사랑하면 사탄이 어찌 침범하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해를 주는데 내가 그냥 놔두겠느냐. 너희끼리도 사랑으로 화목하여라.

나를 향한 사랑이 신앙의 무기다. 자본이다. 권한이다. 주권이다. 힘이다. 벼슬이다. 명예다. 능력이다. 사랑은 표적을 일으킨다. 나의 사랑은 전지전능하다. 나 예수는 사랑의 빛이다. 생명이다. 나의 사랑이 곧 내 아버지와 성령님이 너희를 대하는 사랑이다.

나의 사랑을 받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 나는 사랑 때문에 너희 각자를 위해 대신 죽어 주고 너희를 살렸다. 너희가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았으니 나를 사랑하며 내 몸이 되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잠깐 갔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와서 나를 진정 사랑하며 신부로서 나를 맞기 위해 온전히 단장하고 예비한 자들의 영들만을 휴거시켜 천국급의 영으로 변화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어떤 자들은 아직도 나와 이 시대 신부 역사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신앙에 머물러 살면서, 썩어 없어지는 것에 마음과 몸을 쏟고 살고 있구나. 나의 사랑의 말을 듣고 모두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내가 말한 재림의 때가 이미 진행 중이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급히 예비할 수 있다. 사랑으로만이 나를 맞을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은 나의 재림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영상7>

오직 나만 사랑할 때다. 사랑이 천국이요, 생명이다.

너희에게 평강을 빈다. 사랑의 주니라.